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歸屬企業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南韓과 上海 所在 歸屬紡織工場을 중심으로—\*

서 문 석\*\*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남한과 상해(주변 포함)에 남겨진 귀속기업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종전 직후 귀속기업에 대한 관리와 운영 상황은 향후 귀속기업 활용의 초기 조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남한과 상해에 있던 귀속방직공장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 비교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은 두 지역에 있던 귀속방직공장은 미군정이나 국민정부에 의해 직접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운영주체에 따른 실적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차이점은 남한의 귀속방직공장은 민간위탁으로, 상해의 귀속방직공장은 국민정부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방식이었고, 남한에서는 군정의 원활한 운영이, 상해에서는 국민정부의 내전 승리가 관리와 운영의 목적이었다.

남한에서 귀속방직공장들은 정부 수립 이후에 민간에 불하되어 민영화되었고, 상해지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국유기업을 통해 국가의 필요를 충족해 나갔다. 이런 차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남한에서는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상해지역에서는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선택한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별 공장의 운영시스템에는 외부의 경영환경을 활용했던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 시스템이 기업의 내부적 경영시스템을 구성한다. 따라서 남한과 상해지역에서 미군정과 남경국민정부라는 외적 환경을 경험했던 귀속방직공장들은 이어지는 민영화와 국유화 과정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초기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주제어] 귀속기업, 방직공장, 미군정, 남경국민정부(NNG), 中國紡織建設公司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858)”.  
\*\*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부교수 / seoms85@dankook.ac.kr

## I 목 차 I

I. 서 론	IV. 상해 귀속방직기업의 관리와 운영
II. 종전 직후의 귀속방직기업	V. 결 론
III. 남한 귀속방직기업의 관리와 운영	

## I. 서 론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남한과 상해(주변 포함)에 남겨진 귀속기업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종전 직후 귀속기업에 대한 관리와 운영 상황은 향후 귀속기업 활용의 초기 조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귀속기업이란 승전국에게 귀속된 적국 소유의 기업체를 말한다.<sup>1)</sup>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한국과 중국에서 敵産은 일본과 일본인 소유의 재산이었다. 남한과 북한에서는 미군과 소련군에게, 중국에서는 국민정부와 중국공산당에게 이 재산이 접수되어 귀속되었다.

귀속재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귀속기업이다. 귀속기업은 소유의 주체에 따라 국유기업이나 민간기업이 되었고, 관리 주체에 따라 국영기업이나 민영기업이 되었다. 남한에서 귀속기업은 미군정에 의해 직영되거나 민간에 의해 관리되거나 일부 소규모의 기업은 불하되었다. 북한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다가 국유화되었다. 중국에서는 국민정부에 의해서 직영되거나 일부 소규모 기업은 불하되었다.<sup>2)</sup>

본 연구는 귀속기업의 개별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방직부문 기업들로 범위를 한정한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시 귀속기업 중에서 방직부문이 설비 규모나 생산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종전 직후 생필품 생산이 필요했으며, 많은 인력을 고용한다는 측면에서 방직부문에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방직부문이 수익전망이 가장 좋은 부문이었기 때문에 시장과 민간의 움직임이 가장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대규모 귀속 방직공장이 집중되어 있던 남한과 중국의 상해(주변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본인 소유의 일관생산방식을 갖춘 대규모 방직공장은 남한과 중국의 상해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두 지역이 방직공업의 핵심원료인 면화의 집산지에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

1) 여기에서 歸屬企業이란 종전 이후 패전국의 재산인 敵産을 승전국이 접수하여 귀속시킨 기업을 말한다. 접수단계에서는 敵産 중에서 기업체를 가리키는 敵産企業으로, 귀속된 이후에는 歸屬財產 중에서 기업체를 가리키는 歸屬企業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접수와 귀속과정에서 敵産, 歸屬財產 등의 용어가 혼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귀속된 이후의 관리와 운영과정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귀속기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 귀속기업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남한 귀속기업에 대한 김기원, 『미군정기 경제구조』, 푸른산, 1990; 공제욱,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이대근, 『귀속재산 연구』, 이숲, 2015 등의 연구, 북한 귀속기업에 대한 현승일, 「북한산업경영체제의 전개 -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통일논총』 5: 1, 1985;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58』, 선인, 2005; 이창희,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특성」,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등의 연구, 그리고 중국 귀속기업에 대한 김지환, 『전후중국사(1945-1949)』,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집약적 생산방식에 필요한 저임금의 노동자 및 대규모 수요처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귀속 방직공장들의 변화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기, 즉 남한에서는 종전 이후 1948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미군정시기, 중국에서는 종전 이후 국민정부가 붕괴되는 1948년 5월 20일 이전까지의 남경 국민정부시기로 한정한다.

그동안 귀속방직공장에 대한 연구는 관련당사국인 일본, 한국, 중국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종전 이후 남한에 남겨진 귀속방직공장에 대한 연구<sup>3)</sup>는 귀속재산의 일부로서 한국자본주의 성립과 자본가 형성과정에서의 영향, 일제강점기와 한국경제성장과의 연관 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중국에 남겨진 귀속방직공장에 대한 연구<sup>4)</sup>는 이 기업들을 통합한 중국방직건설공사(中國紡織建設公司: 이하 中紡公司)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종전 이후 접수 및 관리 과정 등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종전 이후 귀속기업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각각의 경영환경에 직면하여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변모했던 전후 귀속기업의 초기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남한과 상해에서 이루어진 귀속 방직기업의 종전 직후 상황과 접수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남한에 남겨진 귀속방직기업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제Ⅳ장에서는 상해에 남겨진 귀속방직기업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3) 한국자본주의와 자본가형성측면에 관한 연구로는 김기원, 「美軍政期 歸屬財産에 관한 研究: 企業體의 處理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공제욱, 「1950년대 韓國 資本家의 形成過程」,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최세양, 「1950년대 韓國 纖維産業의 資本蓄積에 關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3; 김수향, 「미군정의 면방직공업 정책과 운용, 1945-1947」,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등이 있으며, 귀속방직기업과 한국경제성장과의 연관문제에 대한 연구로는 서문석, 「歸屬 綿紡織 企業의 變遷에 關한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7; 서문석,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17, 한국경영사학회, 1998; 서문석, 「귀속재산의 소멸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20, 한국경영사학회, 1999; 서문석, 「해방이후 서울지역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운영과 인력실태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21: 2, 한국경영사학회, 2006 등이 있다.

4) 중국에서는 주로 중국방직건설공사에 대한 부정적 경향의 연구가 지배적인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孟憲章, 『中國近代經濟史教程』, 中華書局, 1951; 湖北大學政治經濟學教研室 編, 『中國近代國民經濟史講義』, 高等教育出版社, 1958이 있으며, 중국방직건설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는 陸仰淵, 「中紡公司的建立及其性質」, 『近代史研究』, 1993; 朱婷, 「中紡公司- 國家壟斷資本企業的特征, 作用及影响」, 『上海經濟研究』 4期, 1999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방직건설공사의 긍정적인 역할에 주목한 金志煥, 「中國紡織建設公司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4; 金志煥, 「戰後 國民政府的 敵產接收와 國營紗廠의 成立」, 『中國近現代史研究』 28, 2005; 金志煥, 「抗戰勝利後 國民政府的 綿業統制政策」, 『東洋史學研究』 89, 2004; 김지환, 「전후 중국 국영기업의 조직과 경영」, 『중앙사론』 42, 2015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종전 이후 중국방직건설공사의 비효율성을 주목하고 있는 川井伸一, 「戰後中國紡織業의 形成と國民政府-中國紡織建設公司의 成立過程」, 『國際關係論研究』 第6号, 1987; 川井伸一, 「大戰後의 中國綿紡織業と中紡公司」, 『愛知大學國際問題研究所紀要』 97, 1992; 川井伸一, 「中紡公司と國民政府의 統制- 國有企業의 自立的經營方針とそま挫折」, 如田光義 編著, 『戰後中國國民政府史의 研究1945-1949年』, 中央大學出版部, 2001 등이 있다.

## II. 종전 직후의 귀속방직기업

### 1. 남한의 귀속방직기업

#### (1) 종전 직후의 상황

종전 당시 일본 및 일본인들의 해외 자산은 남북한에 24%, 중국에 61%, 대만에 8.7%가 남겨졌다. 남북한에 남겨진 24% 중에서 북한에 13.6%, 남한에 10.4%가 있었으며 남한에 남겨진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업 자산으로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개인자산이 21.7%, 일본 정부자산이 19.7%를 차지했다.<sup>5)</sup>

일본인이 소유했던 기업 자산 가운데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부문이 면방직부문이었다. 이 공장들이 보유하고 있던 설비의 규모는 전체 방직설비의 76.8%, 직포설비의 87.1%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소유의 경성방직을 제외하면 일관생산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규모의 근대적 기계제 방직공장은 모두 귀속기업이었다.

#### (2) 적산 기업의 접수

조업이 중단된 귀속기업체들과 조선총독부는 미군의 진주를 기다렸다.<sup>6)</sup> 1945년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11일에 가진 사령관(J. R. Hodge)의 기자회견에서 “조선이 독립되면 조선 안의 재산은 조선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미군은 일본인의 재산을 일정 기간 관리하다가 한국 정부에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sup>7)</sup>

미군정은 9월 25일에 ‘미군정법령 제2호’를 공포하여 일본 소유의 국공유 재산을, 28일에 ‘미군정법령 4호’를 통해 일본 육해군의 재산을 미군으로 귀속시킨다고 발표하였다.<sup>8)</sup> 이를 기반으로 미군정은 鍾淵紡績(光州, 京城)과 東洋紡績(仁川, 京城) 등의 대규모 귀속 방직기업들을 접수하기 시작했다.<sup>9)</sup>

이어서 미군정은 12월 6일에 ‘미군정법령 제33호’를 공포하여 일본 및 일본인의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모두 미군정청으로 귀속시켰다.<sup>10)</sup> 14일에는 ‘관재령 2호’를 통해 관리인제도를 시행하였고, 31일에

5) SCAP(Civil Property Custodian, External Assets Division, General Headquarters), *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 1945.*, 1948;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해방 직후 한국 소재 일본인 자산 관련 자료』, 선인, 2005; 국가기록원,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V』, 2012; 허수열, 「해방 시점에 있어서 조선의 일본인자산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연구』 11: 2, 한국지역사회학회, 2003 참조.

6) 당시의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10周年記念誌』, 1957, I-95쪽, USAFIK, “US Army Forces in Korea X X IV Corps”, 『주한미군사』, 한국현대사 자료총서2, [http://db.history.go.kr/id/husa\\_001r\\_0030\\_0030](http://db.history.go.kr/id/husa_001r_0030_0030) 참조.

7) ‘하지, 기자회견에서 미군 시정방직을 발표’, 『每日新報』(1945. 9. 12).

8) ‘제2호 재산이전 금지’(1945. 9. 25), ‘제4호 일본 육해군재산에 관한 건’(1945. 9. 28), ‘제8호 조선정부 관방외사과 및 재산관리과 설립’(1945. 10. 1), 『美軍政 官報』, 국가기록원(<http://theme.archives.go.kr>).

9) 大韓紡織協會, 앞의 책, 1957, II 부 회원공장 편.

10) ‘제33호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1945. 12. 6), 미군정관보, 국가기록원. 1945년 8월 9일이 기점이 된 것은 소련군의 참전과 일본의 ‘최고전쟁지도회의구성원회의’에서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는 ‘관재령 제8호’를 공포하여 미군 고문관이 귀속재산을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군 고문관에 의한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체제에 대해 한국인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1946년 3월 31일에 ‘관재령 제9호’를 통해 각 부처의 한국인 장관에게 귀속재산의 관리권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한국인의 권한을 강화<sup>11)</sup>하는 등 미군의 적산 접수와 관리에는 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했다.

## 2. 상해의 귀속방직기업

### (1) 종전 직후의 상황

종전 당시 일본 및 일본인들의 해외 자산 중에서 61%가 중국에 남겨졌다. 그 중에 39.4%가 만주지역에, 13.1%가 北中國에, 8.5%가 中·南中國에 있었다. 중·남중국에 남겨진 일본인 소유의 자산 중에서 기업 자산이 전체의 80.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sup>12)</sup>

중국에 투자된 일본인 기업자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문이 방직공업이었다. 이 부문에는 이미 1890년대부터 일본인들이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투자규모는 상해 지역 전체 방직공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종전 직후 일본인 소유 방직공장들은 中國紡織建設公司로 통합되었다. 이 중방공사 소속 공장들은 40여 개에 불과했지만 설비규모는 중국 전체 방직 부문의 37.6%, 직포 부문의 60.1%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 소유 공장보다 상대적으로 최신 설비였기 때문에 영향력도 컸다.<sup>13)</sup>

### (2) 적산 기업의 접수

國民政府는 이미 1945년 초에 ‘淪陷區工鑛事業整理原則及處理方法’을 통해 일본의 패망 이후 일본인 소유 광공업기업들을 몰수하여 중국의 공업화를 가속시킬 구상을 하고 있었다.<sup>14)</sup> 8월 1일에 ‘收復區工鑛事業整理委員會組織規定及收復區特派員辦公處組織規定’을 공포하고 7개 지역에 特派員辦公處를 설치하였다. 21일에는 ‘收復區重要工鑛事業處理辦法’을 통과시키고 국민정부의 현지 행정기관 및 임시기구가 먼저 일본인 소유 방직공장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23일에는 접수기관의 참여인원들이 중국 육군총사령부의 지휘 및 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29일에는 ‘收復區敵國資產處理辦法’을 공포하여 적산을 일괄적으로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9월 11일에는 ‘日本財産處置辦法’을 반포하여 일본 官兵의 소유나 그들이 사용한 건물, 문서, 서류 등의 이출 및 훼손을 금지하였으며, 이들 소유의 은행, 상점, 공장 등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19일에는 경제부 蘇浙皖區特派員辦公處에서 일본인 소유 방직공장들의 체계적인 접수에 착수하였고, 20일부터 상해지

있다(김기원, 앞의 책, 1990, 20~21쪽).

11) ‘재산관리령 제2호 조선군정청 취득 일본인 재산의 보고’(1945. 12. 14), ‘관재령 제8호 각종 귀속사업체 운영에 관한 건’(1945. 12. 31), ‘관재령 제9호 관재령 제8호의 개정’(1946. 3. 31), 『美軍政 官報』, 국가기록원.

12) 각주 5) 참조.

13) 嚴中平 外 編,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 科學出版社, 1955, 159쪽.

14) 국가자원의위원회는 이미 1936년에 산업진흥3개년계획을 세워 외국의 도움 없이도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하려고 할 정도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던 ‘계획경제’에 매료되어 모든 산업을 정부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함으로써 모든 산업을 ‘국영’으로 하고자 했다(Lloyd E. Eastman(저), 이승휘(역),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1999, 245쪽).

역에 있던 일본인 소유 방직공장에 대한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제부 특파원들은 각 방직공장의 책임자들에게 각 공장 및 분공장의 건물, 기계설비, 원료, 현금, 장부, 기록 등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종전 직후 행정기관과 임시기구들에 의해 접수가 중복되면서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관리자의 매수, 장부 조작, 기계설비와 원료 등의 훼손, 몰자 방매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sup>15)</sup>

### Ⅲ. 남한 귀속방직기업의 관리와 운영

#### 1. 귀속방직기업의 관리

##### (1) 관리 체계 : 미군정의 통합관리

미군정은 적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945년 12월 14일에 ‘管財令 제2호 귀속재산의 보고, 운영 - 점유 - 사용 등’을 공포하였다. 여기에는 귀속재산을 관리 및 점유하는 자는 관할지방 재산관리관에게 제반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어 미군정은 1946년 4월 23일에 ‘미군정법령 제73호 道 재산 관리기구의 설치’를 공포하였다. 이 기구에서는 군정청에 귀속된 전체 재산소유권의 조사 및 취득, 운용, 경영, 이용, 보존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각 국이나 과에 속했던 업무를 각 도청에 재산관리소를 설치하여 이관하였다.

1947년 9월에 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로 中央管財處, 道管財處(8개), 地區署(43개), 郡 혹은 市管財處(133개)를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귀속재산에 대한 일반적 관리와 보전, 운영,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유형별로 대항체제를 마련하였는데 동산은 物資營團, 농지는 新韓公社, 임야는 농무부 임업국, 광업·공업·상업 기업체는 상무부, 은행·보험회사는 재무부, 철도·선박 등은 운수부에서 담당하였다.

1945년 9월 11일 미군이 총독부의 農商局과 鑛工局을 광공국으로 합치고 명칭을 商務局, 商務部로 개명한 뒤에 기업체를 담당하도록 했다. 따라서 방직공장들은 상무부 공업국의 방직과에서 관할하였다. 방직과 내부에 미국인 고문관이 관할하는 방직공장 운영부가 있었고, 이 운영부에서 대규모 공장들을 관리했다. 개별 공장에 관리인을 두었지만 여러 공장들을 몇 개의 계열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후 군정청의 귀속기업체 관리기구인 朝鮮實業公社가 각 업종별로 분류되면서 방직공장 운영부가 새롭게 조직되었다. 이 운영부는 조선실업공사 산하에 있었던 4개 방직공장(鐘淵紡績 光州工場, 京城工場, 春川工場과 朝鮮麻紡織 全州工場)과 9개의 피복공장을 관할하였다.<sup>16)</sup>

15) 공산당의 세력이 강했던 화북지역에서는 이 지역을 점령한 미군의 도움을 얻어 11월 말경이 되어서야 접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高村直助, 『近代日本綿業と中国』(김지환(譯),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1982, 351쪽). 『紡織周刊』 7卷 5期, 1946. 3. 5, 115쪽; 金志煥, 「戰後 國民政府의 敵産接收와 國營紗廠의 成立」, 『中國近現代史研究』 28, 중국근현대사학회, 2005, 151쪽에서 재인용.

1947년 3월 '관재령 9호'에 의해 방직공장 운영부가 해체되고 상무부 산하에 적산기업체의 운영 감독과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생산위원회와 관리인 임명, 실태 조사, 운영자금 용자, 기술자 배치 등 생산부문을 담당하는 귀속사업국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이 귀속사업국에는 총무과와 경리과만 있었고, 경리과의 통계계에 방직부문이 있었다. 따라서 이 귀속사업국에서는 귀속기업에 대한 통계만을 관여했고 실질적인 관리는 공업국의 방직과에서 지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업국에는 화학과, 전기과, 기계과, 방직과, 유기가공과, 서무과 등이 있었는데 방직과에 雜品係, 被服係, 絹人絹係, 綿麻係가 있었다.<sup>17)</sup>

1947년 4월에 대한방직협회가 창립되어 방직공장 운영부 산하에 있던 귀속방직공장들을 회원으로 흡수했으며, 원면 할당과 신규 설비 도입 등의 활동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조직 기구와 자원 조달경로, 면제품의 유통 경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군정의 통제는 지속되었다.<sup>18)</sup>

미군정은 군정 초기에 귀속재산의 이양을 공언했었지만 점차로 남한에 미국식 자본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이식시키기 위해서는 귀속재산을 민간에 불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했다. 결국 미군정은 1947년 3월 '법령 제33호 군정청에 귀속된 小事業機關 처분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고, 7월부터 소규모 사업체에 대하여 불하하기 시작했다.

## (2) 관리 방식 : 민간위탁

미군정에서는 귀속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시행했다. 초기에는 군정 관리와 한국인 유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관리인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귀속재산 관계 업무가 경제적 이권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군정 관리나 한국인 유지에 의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에 1947년 6월에 '적산사업체 관리인 및 공동관리인 선정해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인 선정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선정된 관리인들은 회사와 연고가 있는 직원, 주주, 관련 상인 등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관리체제 속에서 관리인들이 자주 바뀌었으며 특히 규모가 큰 공장일수록 교체주기가 짧았다. <표 1>과 같이 귀속방직공장이 불하될 때까지 鐘淵紡績 光州工場의 관리인인 金滢楠과 吳羽蓀, 大田工場의 관리인인 金宗奎를 제외하면 거의 5~6번씩이나 바뀌었으며, 특히 미군정 초기에 자주 교체되었다.<sup>19)</sup>

관리인제도는 관리인들의 도덕적 해이나 개인적 역량의 한계가 나타날 때 기업의 운영이 곤란해지기는 단점도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귀속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제도를 도입하여 1인 관리인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도 했다.

16) 김수향, 「미군정의 면방직공업 정책과 운영(1945~1947)」,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26~32쪽.

17) 남조선과도정부 상무부, 『상공행정연보』, 1947, 283~284쪽.

18) 김수향, 앞의 논문, 2012, 63~64쪽.

19)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1955; 大韓紡織協會, 앞의 책, 1957, 제2부, 제3부;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135쪽, 224~225쪽.

〈표 1〉 주요 귀속면방직공장의 관리 및 불하 관련자 명부

日帝時代 工場名	管理人 및 賃貸人				拂下人
	임명일자	이름	전직	이후 직업	
朝鮮紡織 釜山工場	45.11	河元俊	부산양조 대표, 부산진 주조 및 조선상선의 취체역	대한화재해상보험 사장, 성암 주정공업 사장	姜一邁 (55.10)
	46. 5	崔士烈	미군정 초대 방직과장	동면섬유 사장(불하)	
	47. 5	鄭明石	상공부 공업국장		
	48. 4	鄭浩宗	동경공대 졸업, 조선방직 근무	대한방직(郡是紡績 후신) 상무	
	51. 9	姜一邁	조선상사운수 직원, 조선일보 특파원, 동화백화점 관리인	朝鮮紡織 사장(불하)	
鐘淵紡績 京城工場	45.10	金成浩	숭실학교 졸업, 미군정관리	鐘淵紡績 이사, 석탄공사 총재	白南一 (56.1)
	46. 6	金學洙	미국대학 졸업, 일본 공산공업 기술제조부장		
	48.12	洪貞模	방직기술자(경성고공 졸), 서경염직소 근무, 덕국양행(섬유공장)관리인	덕국양행 사장(불하), 삼광염직공업사 사장	
	53. 8	玄權	조선農畜 취체역		
	54. 3	洪貞模			
鐘淵紡績 光州工場	45.11	金滢楠	미국 대학 졸업, 평남지역 공장장, 미군정관리	전남방직(鐘淵紡績 후신) 사장	金滢楠 (51.11)
	48.10	金滢楠			
東洋紡績 仁川工場	45.10	崔楠	국일관 및 동아부인상회 사장	동화피복 사장(불하)	徐廷翼 (55.8)
	46.10	R.버크	미군 대위		
	47. 8	崔光源	남만방직 경리담당자	한국펄프공업 전무	
	48.12	任文桓	총독부 서기관, 미군정 광공부 관리	농림부 장관, 동화제지 사장	
	49. 9	徐廷翼	동양방직 기사, 北支개발공사 공장장	동일방직(동양방직 후신) 사장	
郡是紡績 大邱工場	47. 4	정기남			薛卿東 (55.8)
	47. 5	崔士烈	(朝鮮紡織 釜山工場 참조)	(朝鮮紡織 釜山工場 참조)	
	49.11	鄭浩宗	(朝鮮紡織 釜山工場 참조)	(朝鮮紡織 釜山工場 참조)	
	51. 9	姜一邁	(朝鮮紡織 釜山工場 참조)	(朝鮮紡織 釜山工場 참조)	
大日本紡績 京城工場	46. 6	池善吉		지한주製綿所 사장	申麟均 (52.3)
	46. 8	양재의	동경공대 졸업, 일본 목산공업 근무		
	47. 3	임상걸	일본 관서대학 졸, 한성홍산 사장	中村농장 불하인	
	49. 5	金滢楠	(鐘淵紡績 光州工場 참조)	(鐘淵紡績 光州工場 참조)	

日帝時代 工場名	管理人 및 賃貸人				拂下人
	임명일자	이름	전직	이후 직업	
吳錫孫紡績 大田工場	47. 8	金鍾奎	방직기술자(경성고공 졸), 경방 근무	대전방직(오우방직 후신)부사장	李錫午 (51.10)
帝國製麻 仁川工場	45.10	鄭奎成	일본 요코하마 상업전문 졸업	협화무역 사장	張龍雲 (52.9)
	48. 1	楊宇朝			
	49. 2	申學均			
	49.10	徐廷翼	(東洋紡績 仁川工場 참조)	(東洋紡績 仁川工場 참조)	

자료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55;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 十周年 記念誌』, 1957;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 산, 1990; 서문석, 「일제하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조선인 고급기술자 연구」, 『경영사학』 32, 2003a; 서문석, 「일제하 고급 섬유기술자들의 양성과 사회진출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34, 2003b; 서문석, 「1950년대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기술인력 연구」, 『경영사학』 56, 2010에서 작성.

그러나 관리인제도나 이사회제도가 일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귀속재산의 경영에 연속성과 책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1946년 11월부터는 부분적으로 임대차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기업체를 중심으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고 경영하는 방식이었다.<sup>20)</sup>

## 2. 귀속방직기업의 운영

### (1) 운영 실적 : 1946년 초반 생산능력 회복

일제강점기에는 전시체제로 편입되기 시작한 1938년에 방직공업이 가장 호황이었다. 하지만 전시체제가 본격화되어 총력전체제가 형성되면서 인력이나 자원이 군수부문에 집중되면서 방직공업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1940년대에 들어서면 면사와 면포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어 1944년에는 면사와 면포 생산이 1938년의 56.5%, 34.0%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체설비 중에서 운전되고 있는 설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대설비운전율에서도 각각 64.0%, 54.0%에 불과할 정도로 설비의 운전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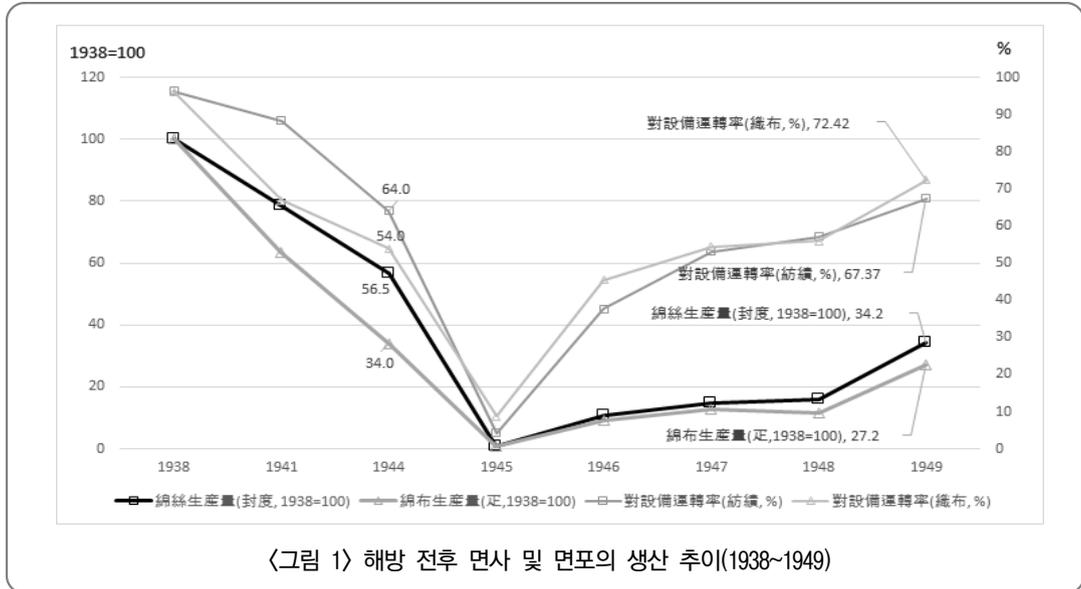
해방이 되면서 조업이 거의 중단되었던 방직공업은 1946년이면 방기와 직기의 대설비운전율이 각각 37.6%, 45.4%까지 상승했으며, 1947년에는 53.1%, 54.5%까지 향상되었다. 1944년의 대설비운전율이 각각 64%, 54%인 것을 감안하면 보유 설비의 상당부분을 해방 직전과 같은 수준까지 가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생산량의 추이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대설비운전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약 10% 수준에 머물렀다. 이것은 원료인 원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sup>21)</sup>이었지만 주요한 부속품들

20) 1948년 3월 10일 현재 미군정이 접수하고 있는 남한의 귀속사업체 1,758개 중에서 임대기업체가 322개로 18.3%, 불하기 업체는 26개로 1.5%, 나머지는 미군정이 중앙에서 직할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기업체였다(남조선과도정부 상무부, 앞의 책, 1947, 279쪽).

인 機料品과 일본인 기술자들의 공백 때문에 나타난 기술의 부족도 원인이 되었다.

미군정에 의해 1947년 4월에 미국산 원면이 도입<sup>22)</sup>되면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1948년 5월 풍부한 수력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던 북한이 남한으로의 송전을 중단함으로써 생산량은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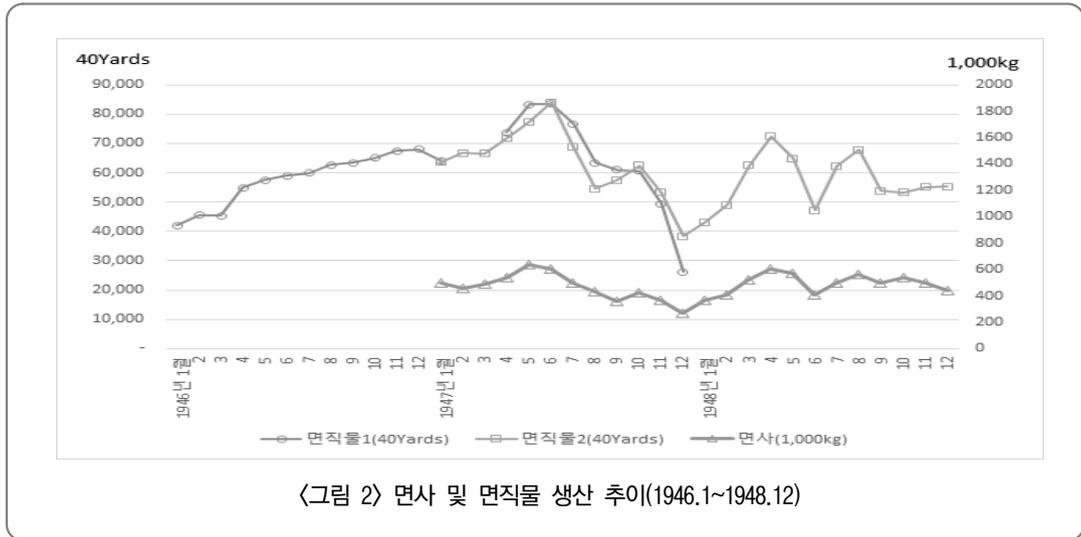
자료 : 大韓紡織協會, 『纖維年報』, 1955;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10周年記念誌』, 1957; 한국은행, 『면방직공업에 대한 조사』, 1953에서 작성.

이 시기 상황을 〈그림 2〉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면직물의 생산은 1946년 초반이면 이미 6만 야드가 생산된 뒤 1948년 정부 수립 시기까지 조금의 변동은 있었지만 생산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면사도 생산량이 집계된 1947년부터 50만kg 내외를 생산했다. 그 중에서 해외에서 원면 33,347俵가 도입된 1947년 4월 직후에 면사나 면직물의 생산이 크게 늘었다. 또한 1948년 4월에 34,617표가 도입되는 것에 맞추어 다시 생산이 증가했다.

하지만 1948년 5월에 북한으로부터 송전이 중단되면서 생산이 급감하기도 했다. 이렇듯 핵심원료인 원면의 도입과 공장 가동 동력인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생산이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매년 일정량의 원면이 안정적으로 도입되는 1949년이 되어야 면사와 면포의 생산이 급증하기 시작했다.<sup>24)</sup>

21) 南朝鮮過渡政府中央經濟委員會, 『1946年韓國産業勞務力及賃金調査』, 〈第 16表〉, 1946.  
 22) 대한방직협회, 앞의 책, 1957, 33~34쪽.  
 23) 유승주, 「미군정기 남북한 전력수급협상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4) 한국은행 조사부, 『산업중탐』, 1954, 127쪽.

이런 상황을 볼 때 1947년과 1948년에 지속되는 생산수준, 즉 면사 6만 야드, 50만 kg의 생산수준이 나타나는 1946년 초반이면 귀속 방직공장들은 생산능력을 일정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면사 및 면직물 생산 추이(1946.1~1948.12)

자료 : 한국은행, 『조선경제연보』, 1948, III-36~37; 한국은행, 『경제연감』, 1949, IV-48~49에서 작성.  
 주 : 면직물1은 『조선경제연보』에서, 면직물2는 『경제연감』에서 작성한 수치임.

〈표 2〉 상무부 직할공장 손익일람표(1947.1~1947.6)

부문	회사수	이익금		적자	
		금액(圓)	비중(%)	금액(圓)	비중(%)
방직공업	14	121,645,604.34	53.3	-8,786,679.72	58.4
기계공업	7	4,313,882.30	1.9	-934,907.40	6.2
전기공업	4	33,770,430.86	14.8	-1,099,128.01	7.3
인쇄공업	2	14,160,639.27	6.2		0.0
화학공업	9	50,636,293.72	22.2	-3,730,378.70	24.8
식품공업	3	2,103,066.24	0.9		0.0
제지공업	1	-504,610.95	0.2	-504,610.95	3.4
양조공업	1	2,040,190.50	0.9		0.0
합계	41	228,165,496.28	100.0	-15,055,704.78	100.0

자료 : 남조선과도정부, 『상공행정연보』, 1947, 280-1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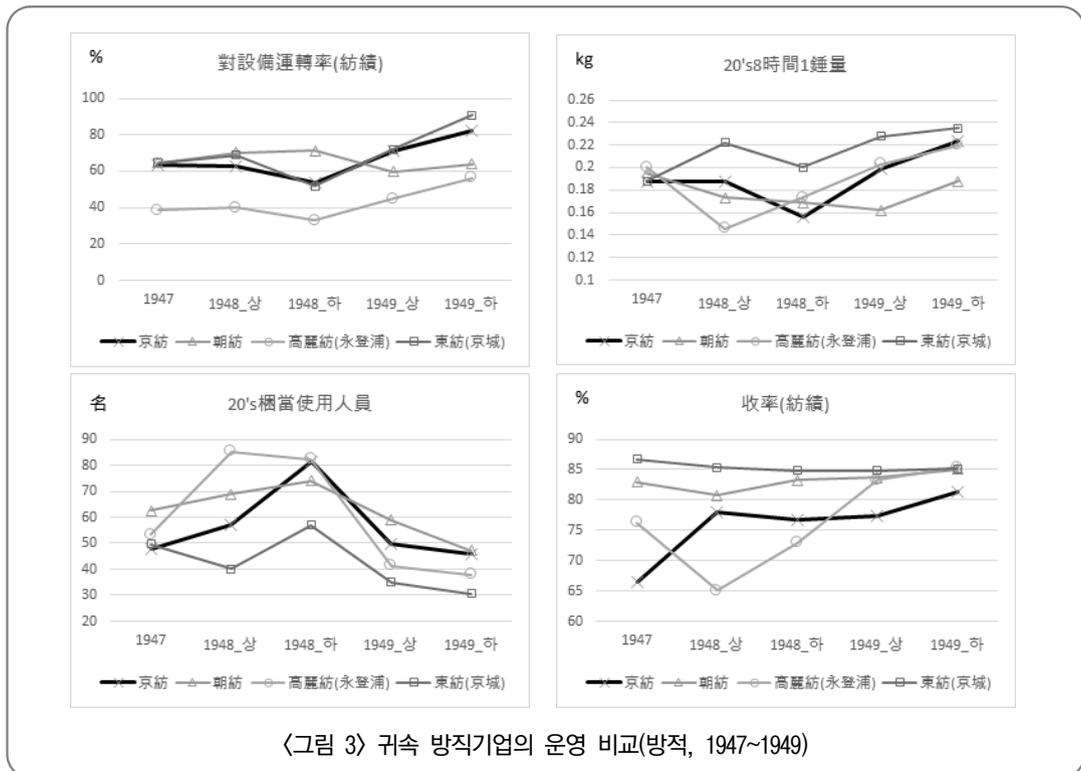
미군정에 의한 귀속기업체의 운영실적을 1947년 전반기 상무부 직할공장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2>는 1947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무부 직할공장들의 손익일람표이다. 상무부 직할공장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41개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문별로 보면 방직공업이 14개 공장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공업에 9개, 기계공업에 7개의 공장이 있었다.

이 공장들의 전체 이익금은 2.28억圓 정도였으며, 적자 기업은 9개 공장이었지만 적자 금액은 1,500만圓 수준으로 전체 이익금의 약 6.6%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 방직공업이 전체 이익금의 53.3%, 전체 적자의 58.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다음으로는 화학공업이 각각 22.2%, 24.8%를 차지했다.

전체적인 손익구조를 볼 때 직영공장을 운영했던 중국 국민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이익구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귀속기업에 대한 납세도 일반적인 조세제도의 운영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특정기업이나 특정부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2) 운영 실적 비교

방직공업에 속해있는 대표적인 공장들의 운영상황을 <그림 3>과 <그림 4>를 통해 비교해 보자. 4개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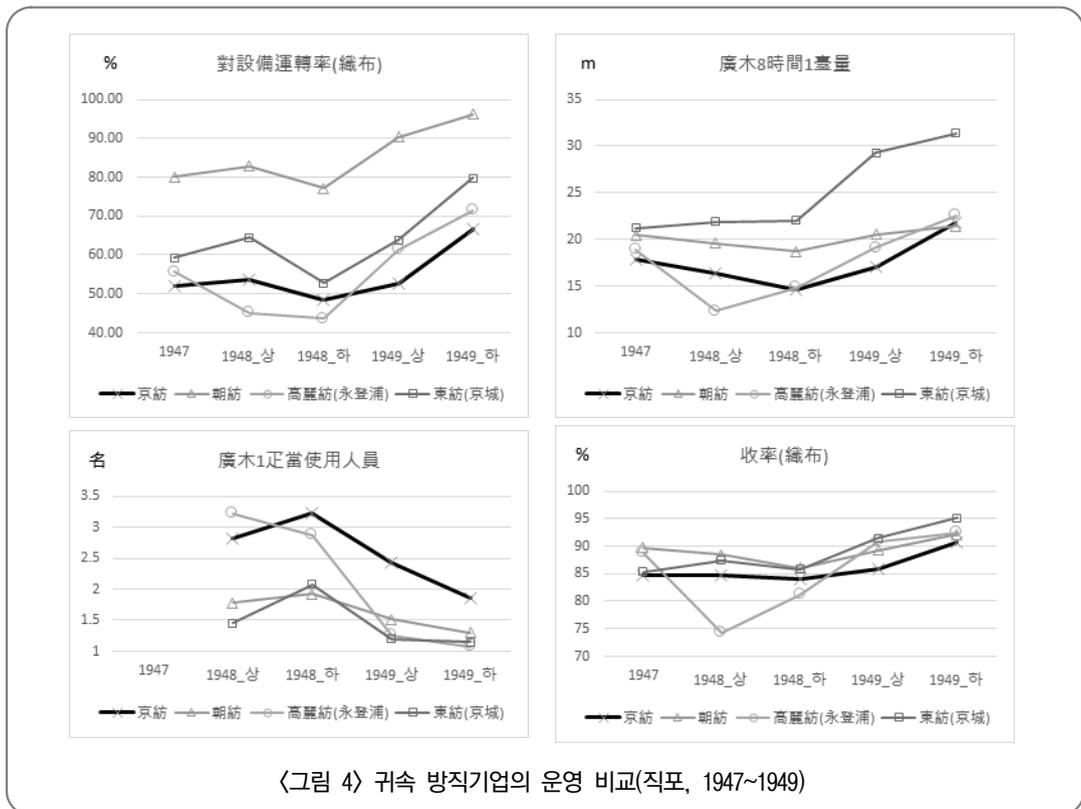
<그림 3> 귀속 방직기업의 운영 비교(방적, 1947~1949)

자료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 연도에서 작성.

장들 중에서 고려방직 영등포공장은 종연방직 경성공장의 후신으로 미군정이 방직공업 운영부를 통해 직접 운영했던 공장이었다. 조선방직 부산공장과 동양방직 경성공장은 귀속 방직기업이었지만 관리인과 대리인을 통해 경영했던 공장인 반면에 경성방직은 한국인 소유 공장이었다.

방직부문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3>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상황은 상무부 직할공장이었던 고려방직이 효율성도 낮았으며, 변동성도 컸다는 사실이다. 설비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대설비운전율에서도 고려방직은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낮았으며, 설비효율성을 나타내 주는 20's시간1추량, 노동생산성을 나타내 주는 20's 곤당사용인원, 원료생산성을 나타내 주는 수율에서도 모두 상대적으로 아주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현상은 1948년 상반기에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효율이 개선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포부문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 4>에서도 방직부문과 마찬가지로 고려방직이 1948년에 아주 효율성이 낮았다. 운전율에서는 조선방직이, 광목8시간1추량에서는 동양방직 경성공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였으며 경성방직은 직포부문의 모든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그림 4> 귀속 방직기업의 운영 비교(직포, 1947~1949)

자료 :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각 연도.

고려방직(영등포)은 1936년, 동양방직(경성)은 1937년 설립되어 당시로서는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이었다. 특히 고려방직(영등포)은 방기 50,000추, 직기 1,600대를 갖춘 당시 최신 설비의 최대 공장이었다. 따라서 고려방직의 효율이 특별히 낮게 나타날 타당한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1917년에 설립된 조선방직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919년 한국인에 의해 최초로 설립되었던 경성방직도 노사대립이 극심해서 그다지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귀속 여부에 따른 소유방식의 차이에 의해서는 운영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의 기반에는 당시 조업재개에 관건이었던 원면이 1947년부터 도입되어 대한방직협회에 의해 각 공장에 배분되었고, 전력과 기료품 등 조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요인들에서 한국인 소유였던 경성방직과 다른 공장들 사이에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미군정이 직영했던 고려방직의 효율은 관리나 임대를 했던 공장보다 효율성이 크게 낮게 나타나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운영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경영환경의 변화가 많았던 상황에서 고려방직은 미군 관리인의 관여로 의사결정이나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에 관리인이나 임대인, 그리고 소유주 등이 경영했던 다른 공장들과는 달랐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직영시스템이 사라지는 정부 수립 이후에는 모든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었다.

## IV. 상해 귀속방직기업의 관리와 운영

### 1. 귀속방직기업의 관리

#### (1) 관리 체계 : 국민정부의 직접 관리

국민정부가 敵産으로 접수하여 관리한 귀속기업체는 주로 일본인이 설립하여 경영하던 공장들이었다. 물론 이 공장들이 일본인들만의 투자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인 경영자와 기술자들이 운영의 주체였다.

종전 이후 생필품이 부족하여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민정부는 접수한 귀속기업들의 조업을 재개시켜 필수품들을 공급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생필품 제조 부문이며, 노동집약적인 부문이었던 방직공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더구나 당시 귀속 방직공장은 규모면에서나 설비의 효율성면에서 중국인 소유 공장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접수된 귀속방직공장을 재가동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다.

1945년 9월 21일부터 귀속 방직공장에 대한 접수가 진척되자 11월 12일에는 전국의 방직공업을 관리하기 위한 ‘紡織事業管理委員會’가 경제부 산하에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귀속방직공장과 그 부속자산을 접수하고 정리하여 생산을 재개하는 일이었다. 21일에 개최되었던 이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접수된 귀속방직공장(敵産紗廠)을 모두 이 위원회의 관할 아래로 이관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그리고 11월 27일에 열린 행정원 회의에서 행정원장(宋子文)은 귀속방직공장을 국영기업인 中國紡織建設公司로 통합하여 경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sup>25)</sup>

‘정부는 국민의 의식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물가가 폭등하는 전후 시기에 국가가 직접 방직공장(紗廠)의 설비를 장악함으로써 이를 통해 면사, 면포의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sup>26)</sup>

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귀속방직공장을 국영으로 운영하기로 한 데에는 국민정부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 국민정부는

“상해 등 지역의 귀속방직공장(敵產紗廠)들은 폐쇄되어 있고, 후방 방직공장은 생산이 중지되어 노동자의 실업과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생산의 증대를 위해서, 특히 민생공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접수한 공업기구는 신속히 생산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국영사업의 효율에 주목한 것”<sup>27)</sup>

이라는 입장이었다. 즉 국영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신속한 조업재개와 노동자들의 실업 해소 등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 관료화와 비효율, 비능률을 이유로 이를 비판하고 민영화를 주장하는 요구도 많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 관리 방식 : 통합관리

중방공사는 1945년 12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이어서 지역별로 분공사를 설치하기로 하고, 전체를 관리하는 총공사는 上海에 두었다.

조직체계는 행정원 경제부장(翁文灝)과 방직부문 전체를 관리하는 방직사업관리위원회 주임위원(束云章)이 방직업자들의 조직인 전국기면방직공업동업공회연합회와 상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제6구기면방직공업동업공회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면서 중방공사를 직접 통제하는 체계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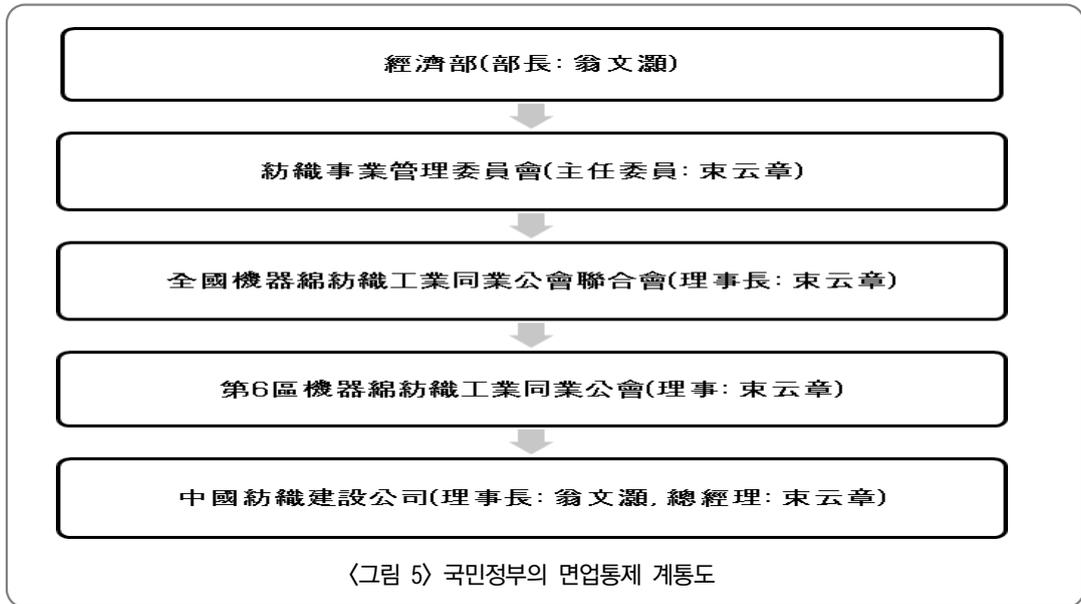
1946년 1월 5일 특파원판공처가 상해에 있는 20여개의 귀속방직공장의 약 83만추의 정방기, 16,000여대의 직기를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13일에 특파원판공처와 중방공사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접수과정은 국영사찰에서 파견한 공장장이 관할하며, 건축물 및 부동산, 기계, 물류, 회계장부 및 문서, 창고 등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했다.

1월 16일부터 시작된 접수에서 19개의 적산방직공장이 접수되었는데 총 933,232추의 정방기 중에서 약 26.8%인 250,444추만이 가동되고 있었고, 직기는 총 16,016대 중에서 37.1%인 5,936대만이 가동되고 있었다. 25일부터 시행된 2차 접수에서는 17개 공장이, 2월 6일부터 이루어진 제3차 접수는 15개 공장이 접수되어 총 52개 공장이 접수되었다.

25) 金志煥, 앞의 논문, 2005, 457~458쪽.

26) 『大公報』, 1946.1.27; 金志煥, 위의 논문, 2005, 152~153쪽에서 재인용.

27) 中央執行委員會秘書處, 『中國國民黨第六屆中央執行委員會第2次全體會議宣言及重要決議書』, 1946, 60~61쪽; 金志煥, 위의 논문, 2005, 153쪽에서 재인용.



자료 : 金志煥, 「中國紡織建設公司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4, 26~28쪽에서 작성.

이후 중방공사는 上海에 설치된 총공사 이외에 天津, 靑島, 東北에도 分公司를 설치하여 귀속방직공장을 접수하였다. 天津의 귀속방직공장은 1945년 10월 천진시장에 의해 접수되었다가 천진특파원관공처로, 다시 12월 말에는 중방공사 천진분공사로 이관되었다. 靑島의 적산방직공장은 청도시장에 의해 접수되어 관리되다가 1946년 1월말에 중방공사 청도분공사로 이관되었다. 東北지역에서는 내전으로 10월에 가서야 분공사가 설립되었고, 194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늦었다.

〈표 3〉 중국방직건설공사 소속공장 설비 및 운전 상황(1946)

지역	공장 수	紡機					織機				
		錘數(a)	(a)/(x) (%)	平均運轉錘(b)	(b)/(x) (%)	對設備運轉率(%)	臺數(c)	(c)/(x) (%)	平均運轉臺(d)	(d)/(x) (%)	對設備運轉率(%)
上海	20	897,328	50.5	505,074	57.2	56.3	18,195	46.1	9,878	50.3	54.3
靑島	8	324,524	18.3	171,775	19.5	52.9	7,262	18.4	4,078	20.8	56.2
天津	7	332,872	18.7	163,204	18.5	49.0	8,640	21.9	4,963	25.3	57.4
東北	5	223,208	12.6	42,231	4.8	18.9	5,330	13.5	727	3.7	13.6
合計(x)	40	1,777,932	100.0	882,284	100.0	49.6	39,427	100.0	19,646	100.0	49.8

자료 : 嚴中平 外 編,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 科學出版社, 1955, 159쪽에서 보완 작성.

당시 접수되었던 방직공장들의 상황을 <표 3>을 통해 살펴보자. 1946년 말에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중방공사로 통합된 방직공장들은 모두 40여개였으며, 그중 절반인 20개의 공장이 상해에 있었다.

이 공장들은 보유 방기가 전체 방적설비의 50.5%, 평균운전추는 전체의 57.2%를 차지하였고, 직기도 전체의 46.1%, 평균운전대도 전체의 50.3%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46년까지 상해와 청도, 천진에서는 약 50%를 넘는 운전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동북지역은 아직 국민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율이 아주 낮은 상황이었다.

## 2. 귀속방직기업의 운영

### (1) 운영 실적 : 1947년 후반 생산능력 회복

中紡公司 소속 공장들은 1946년경에 생산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표 4>처럼 종전 이전 상황을 100으로 했을 때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1946년 1월까지의 정상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1946년 12월이면 면사 생산량의 경우에는 종전 이전의 약 80%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면사생산량이 크게 향상된 것은 청도와 천진의 중방공사 소속 공장들이 생산을 정상적으로 재개했기 때문이었다. 1947년 6월이 되면 면사나 면포 생산이 모두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가 되면 접수된 적산방직공장들이 상당 수준까지 운영이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 종전 전후 면사 및 면포의 생산량 비교

	종전 이전	1946년 1월	1946년 12월	1947년 6월
면사	100	6.6	81.4	82.7
면포	100	-	-	80.9

자료 : 金志煥, 「中國紡織建設公司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4, 53쪽, <표 15>, <표 16> 참조 작성.

중방공사는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정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다. 따라서 정부로의 이윤 상납, 군수품 대금 미지급, 협의가격에 의한 배급판매제, 법정이윤제도 등으로 경영에 직접적인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공사의 각 공장들에서는 개별 공장들의 이해관계가 있었으며, 이를 총괄하고 있는 중방공사 내에서도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입장이 나타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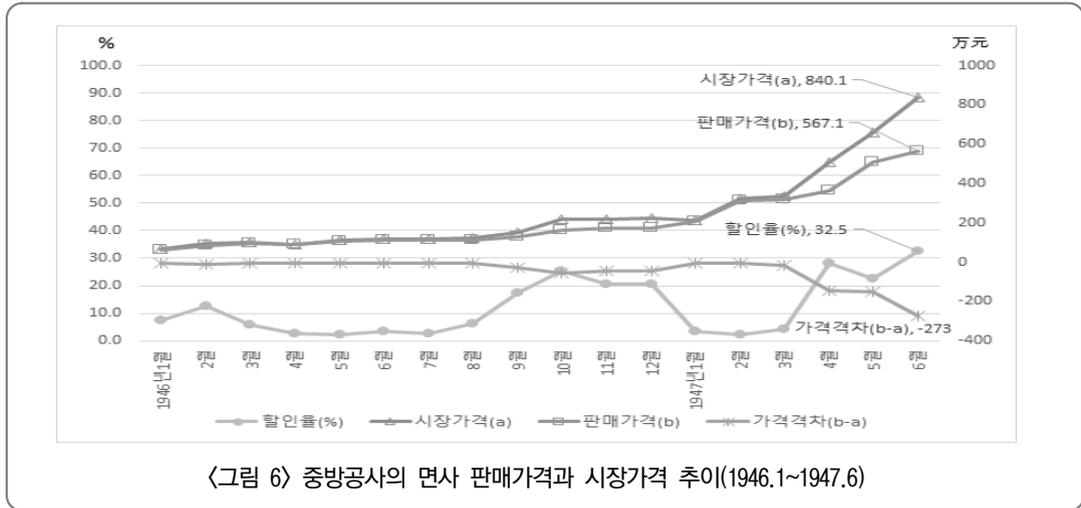
당시 국민정부의 자원위원회에서 관리하던 국영기업 중에서 오직 臺灣製糖公司와 더불어 중방공사만이 이익<sup>28)</sup>을 내고 있었다. 중방공사는 1946년도에는 순이익의 14%를 상납하는 데에 그쳤지만 1947년에는 순이익의 67%를 상납하면서 정상경영이 어려울 정도였다. 그 결과 상납액은 당시 정부예산 공공사업수입액의 51.6%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이 되었다.<sup>29)</sup>

28) 川井伸一, 앞의 논문, 1992, 343쪽.

뿐만 아니라 군납대금 미지불 문제, 협의가격에 의한 배급판매 등의 문제도 중방공사의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배급판매에 의한 손실은 순이익의 1/5 수준으로 상납액을 넘어설 정도였다. 또한 1947년 7월 시점의 미지급금이 면화구입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sup>30)</sup>

심지어는 1947년 5월 중방공사 대표가 경제부장에게 3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출하는데 그 첫째가 공사의 이윤을 공사의 확대재생산에 투자하지는 것이었고, 둘째가 공사의 상업화를 도모하지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직원의 대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sup>31)</sup>

이렇게 적산방직공장들을 통합했던 중방공사는 국민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민정부는 이런 자금을 바탕으로 공산당과의 내전과 종전 직후 혼란에 대처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방공사를 국영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료 : 紡建要覽編輯委員會 編, 『紡建要覽』, 1948, 157; 川井伸一, 「大戦後の中国綿紡織業と中紡公司」, 『愛知大学国際問題研究所紀要』 97, 1992, 336쪽에서 재인용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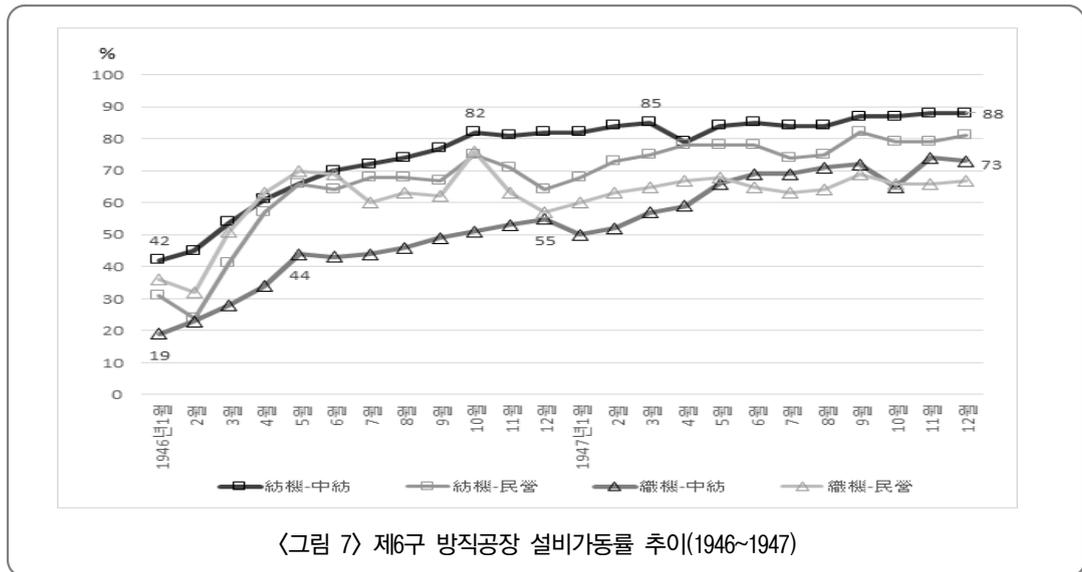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정부에 의한 중방공사의 경영은 1947년 초반부터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1946년 하반기에 면사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통제되고 있던 중방공사의 면사가격도 서서히 상승해서 1947년 3월에는 중방공사 면사의 할인율이 4.4%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후 면사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통제를 받고 있던 중방공사의 면사가격은 시장가격과 큰 격차가 나기 시작해서 6월에는 할인율이 32.5%까지 치솟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1948년에 들어서면 내전이 국민정부에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29) 『中国經濟年鑑』, 太平洋經濟研究社, 1947, 上編 77.  
 30) 川井伸一, 앞의 논문, 343~344쪽. 일반적으로 면화구입액은 제조원가의 60~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방직공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31) 『紡織周刊』, 第8卷 第11期, 334쪽; 川井伸一, 위의 논문, 1992, 346쪽에서 재인용.

## (2) 운영 실적 비교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第6區를 중심으로 중방공사와 민영공장들의 운영 실적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중방공사의 공장들이나 민영공장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중방공사 소속 공장들이 방적부문은 민영공장보다 조금 높게, 직포부문은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1946년 1월에 중방공사의 설비가동률은 방기가 42%, 직기가 19%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하게 가동률이 높아져서 1946년 10월이면 방적부문은 80%를, 직포부문은 50%를 넘어서었다. 이후 방적부문은 정체상태를 보이는 데에 반해 직포부문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47년 말이면 73%까지 상승하게 된다. 중방공사가 방기의 가동률에서 민영공장보다 높은 것은 중방공사가 정부의 통제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로 확보가 원활하고 설비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직기의 가동률을 보면 민영공장의 가동률이 1947년 중반까지는 중방공사의 가동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종전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민영공장에서 생산한 직물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들 공장에서는 굵은 태번수의 실을 사용하여 두터운 저급품의 직물을 주로 생산했다.



자료 : 中國紡織學會, 『紡織周刊』 9-22, 1948, 300쪽; 川井伸一, 「大戦後の中国綿紡織業と中紡公司」, 『愛知大学国際問題研究所紀要』 97, 1992, 335쪽에서 재인용 작성.

이들의 생산성을 비교해 본 것이 <표 5>인데, 역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만 위의 <그림 7>과 관련하여 분석해 보면 방적부문의 경우 중방공사 소속 공장들이 가동률은 빠르게 높였으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민영공장에 비해 낮았으며, 직포부문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설비 생산성은 민영공장보다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입인원 당 생산량을 보면 중방공사가 민영공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인원들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방공사 소속 공장들의 설비가 상대적으로 더 우수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표 5〉 제6구 방직공장의 생산성 비교(1946)

	生産量		平均稼働設備		設備生産性		勞働生産性(紡機)
	綿絲(件)	綿布(疋)	紡機(鍾)	織機(臺)	綿絲/紡機	綿布/織機	綿絲/人員
中紡公司(上海)	258,620	5,414,199	514,671	10,178	0.502	532	24.87
民營工場	680,789	3,349,388	1,201,729	6,734	0.566	497	22.66

자료 : 川井伸一, 「大戦後の中国綿紡織業と中紡公司」, 『愛知大学国際問題研究所紀要』 97, 1992, 336쪽에서 작성.

결론적으로 1946년에 들어서면 중방공사의 각 공장들이 생산을 재개하면서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기 시작하였고, 1947년 후반이 되면 종전 이전의 80% 정도까지 향상되었다. 귀속방직공장들로 구성된 중방공사 소속 공장들이 종전 전후에 운영주체가 변동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민영공장들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수준까지 운영이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 V. 결 론

이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남한과 상해(주변 포함)에 남겨진 귀속기업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종전 직후 귀속기업에 대한 관리와 운영 상황은 향후 귀속기업 활용의 초기 조건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부문별로 두 지역의 귀속방직공장을 비교해 보면 먼저 관리체계 측면에서 남한에서는 귀속방직공장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을 통해 활동하고 미군정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통제하는 수준의 체계가 구축된 반면에 상해지역에서는 귀속방직공장들이 국민정부에 의해 국영기업으로 통합되어 직접 관리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차이는 귀속방직기업을 일정기간동안 관리하고자 했던 미군정과 이들을 내전에 활용하고자 했던 남경국민정부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둘째, 관리방식 측면에서 보면 남한의 귀속방직공장들은 관리인이나 이사회를 통한 민간 위탁 방식으로 관리된 것에 비해 상해지역에서는 국영기업이 각 지역에 지사를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런 차이는 남한의 귀속방직공장을 관리했던 미군정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하고자 하는 입장이 분명했던 것에 비해 상해지역에서는 국민정부가 귀속방직공장들을 통해 내전 승리를 위한 총력전체제를 구성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운영실적을 보면 남한의 귀속방직공장들은 1946년 방기와 직기의 대설비운전율이 각각 37.6%와 45.4%로 종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던 것에 비해 중방공사의 경우에는 1947년 후반에야 생산능력을 회복하였다. 상해지역에서는 중방공사가 내전으로 인해 상해 이외지역의 운영실적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해지역에 있는 귀속방직공장으로 한정할 경우 대설비운전율이 각각 56.3%, 54.3%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남한과 상해 소재 귀속방직공장들의 초기 운영실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종전 직후 귀속방직공장의 설비를 정비하여 조업을 재개하는 수준에서는 두 지역이 크게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넷째, 운영 실적을 다른 공장들과 비교해 보면 남한에서는 귀속여부에 따른 편차가 거의 없었지만 군정이 직영했던 공장은 상대적으로 운영성과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상해지역에서는 귀속방직공장들과 민영공장들의 운영성과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남한과 상해지역에서 일본인 소유 공장들이 모두 귀속된 이후에는 방직공장들 간의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다만 남한에서 미군정의 직영공장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미군 관리인의 관여로 의사결정이나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된다.

이런 비교 분석을 근거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첫째, 남한이나 상해에서 귀속방직공장들은 생필품의 공급이나 유희노동력의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남한이나 상해에서 귀속 여부나 운영주체에 따른 실적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일본인 소유 공장들이 귀속된 이후에는 방직공장들 간에 소유형식이나 운영주체에 따른 차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반면에 차이점을 보면 첫째, 남한에서는 귀속방직공장이 관리인, 임차인등을 통해 민간에 위탁되는 방식이 었지만 상해에서는 귀속방직공장에 정부 관료가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둘째, 남한에서는 귀속방직공장의 운영이 개별 공장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상해에서는 귀속방직공장들이 중방공사라는 국영기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셋째, 남한에서는 귀속방직공장의 운영이 원활한 군정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에 비해 상해에서는 국민정부가 필요한 군비와 군수품의 공급을 위해 귀속방직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했다.

남한에서 귀속방직공장들은 정부 수립 이후에 민간에 불하되어 민영화되었고, 상해지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국유기업을 통해 국가의 필요를 충족해 나갔다. 이런 차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남한에서는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상해지역에서는 사회주의경제체제를 선택한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별 공장의 운영시스템에는 외부의 경영환경을 활용했던 시스템이 존재하고 이 시스템이 기업의 내부적 경영시스템을 구성한다. 따라서 남한과 상해지역에서 미군정과 남경국민정부라는 외적 환경을 경험했던 귀속방직공장들은 이어지는 민영화와 국유화 과정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초기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표 6〉 남한과 상해지역의 귀속방직공장 관리 및 운영 비교

	공통점	차이점	
		한국(남한)	중국(상해)
관리체계		지원과 통제체계	직접적인 관리체계
관리방식		민간 위탁	직접 관리
		개별기업 중심의 간접운영	중방공사를 통한 직접운영
운영실적		1946년 초반 회복	1947년 후반 회복
운영실적비교	관영과 민영의 실적이 유사		
관리 및 운영 목적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	공장의 정상적 운영이 관건	군비와 군수품 조달
		안정적인 군정 운영	내전 승리

자료 : 본문에서 작성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每日新報』

『大公報』

『紡織周刊』

공제욱, 「1950년대 韓國 資本家の 形成過程」,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_\_\_\_\_,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백산서당, 1993.

국가기록원, 『중요 공개기록물 해설집 V』, 2012.

김기원, 「美軍政期 歸屬財産에 관한 研究 : 企業體의 處理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_\_\_\_\_, 『미군정기 경제구조』, 푸른산, 1990.

김수향, 「미군정의 면방직공업 정책과 운영(1945~1947)」,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金志煥, 「戰後 國民政府의 敵産接收와 國營紗廠의 成立」, 『中國近現代史研究』 28, 중국근현대사학회, 2005.

\_\_\_\_\_, 「전후 중국 국영기업의 조직과 경영」, 『중앙사론』 42, 2015.

\_\_\_\_\_, 「中國紡織建設公司研究」, 復旦大學出版社, 2004.

\_\_\_\_\_, 「抗戰勝利後 國民政府의 綿業統制政策」, 『東洋史學研究』 89, 2004.

\_\_\_\_\_, 『전후중국사(1945~1949)』,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남조선과도정부 상무부, 『상공행정연보』, 1947.

南朝鮮過渡政府中央經濟委員會, 『1946年韓國産業勞務力及賃金調査』, 〈第 16表〉, 1946.

大韓紡織協會, 『紡協創立10周年記念誌』, 1957.

대한방직협회, 『섬유연보』, 1955.

孟憲章, 『中國近代經濟史教程』, 中華書局, 1951.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58』, 선인, 2005.

서문식, 「歸屬 綿紡織企業의 變遷에 관한 研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7.

\_\_\_\_\_, 「귀속재산의 소멸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20, 한국경영사학회, 1999.

\_\_\_\_\_,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17, 한국경영사학회, 1998.

\_\_\_\_\_, 「해방직후 서울지역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운영과 인력실태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21(2), 한국경영사학회, 2006.

유승주, 「미군정기 남북한 전력수급협상 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대근, 『귀속재산 연구』, 이숲, 2015.

이창희,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의 형성과 특성」,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최세양, 「1950年代 韓國 纖維産業의 資本蓄積에 關한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3.

한국은행 조사부, 『산업종람』, 1954.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해방 직후 한국 소재 일본인 자산 관련 자료』, 선인, 2005.
- 허수열, 「해방 시점에 있어서 조선의 일본인자산에 대한 분석」, 『지역사회연구』 11: 2, 한국지역사회학회, 2003.
- 현승일, 「북한산업경영체제의 전개 -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통일논총』 5: 1, 1985.
- 高村直助, 『近代日本綿業と中国』(김지환(譯), 『일본기업의 중국진출』, 신서원, 1982).
- 嚴中平 外 編, 『中國近代經濟史統計資料選輯』, 科學出版社, 1955.
- 陸仰淵, 「中紡公司的建立及其性質」, 『近代史研究』, 1993.
- 朱婷, 「中紡公司 - 國家壟斷資本企業的特征, 作用及影响」, 『上海經濟研究』 4期, 1999.
- 中央執行委員會祕書處, 『中國國民黨第六屆中央執行委員會第2次全體會議宣言及重要決議書』, 1946.
- 川井伸一, 「大戦後の中国綿紡織業と中紡公司」, 『愛知大学国際問題研究所紀要』 97, 1992.
- \_\_\_\_\_, 「戦後中国紡織業の形成と国民政府 - 中国紡織建設公司の成立過程」, 『国際関係論研究』 第6号, 1987.
- \_\_\_\_\_, 「中紡公司と国民政府の統制 - 国有企業の自立的経営方針とそま挫折 -」, 姫田光義 編著, 『戦後中国国民政府史の研究1945~1949年』, 中央大学出版部, 2001.
- 湖北大学政治経済学教研室 編, 『中国近代国民經濟史講義』, 高等教育出版社, 1958.
- 『中国經濟年鑑』, 太平洋經濟研究社, 1947.
- Lloyd E. Eastman(저), 이승휘(역), 『중국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베개, 1999.
- SCAP(Civil Property Custodian, External Assets Division, General Headquarters), Japanese External Assets as of August 1945, 1948.
- USAFIK, “US Army Forces in Korea X X IV Corps”, 『주한미군사1』, 한국현대사 사료총서2, 2014.

\* 이 논문은 2017년 3월 3일에 투고되어,  
2017년 3월 13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7년 3월 2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4월 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Abstract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Vested Firms after the Second World War  
— Focused on Vested Textile Firms in South Korea and Shanghai —

Seo, Moon-Seok\*

This study investigates management and operation for the vested firms in Korea and China after the Second World War. It is significant that postwar management for these vested firms is considered the original form of utilization for the vested firm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ir government.

When comparing the management for formerly Japanese-owned textile factory located in South Korea and China(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NNG), this study finds followings.

It is commonly find that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and NNG organized direct management system to operate the vested firms, but there were rarely differences in the operation performance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management.

However, there were several differences in managing the vested firms. The USAMGIK delegated to private, but the NNG directly managed. The USAMGIK aimed to successfully administrate state affairs, but the NNG intended to win the civil war.

After establishing government, Korea privatized these vested firms by disposal, but China met its national requirements by means of state-own enterpris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irect 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for the vested firms was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adopted capitalistic economy, but China chosen a socialist economic system.

However, the operation system for individual firms had been based on the external management environment, which influenced the internal management system in the firm. The vested firms in South Korea and Shanghai had encountered the common external management environment such as USAMGIK and NNG respectively. These experiences provided the vested firms with opportunity to effectively adapt for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and nationalization.

**[Key Words]** *enemy property, textile factory,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NNG)*

---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